

'도시재생으로 무주 또 다른 시작'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진안군,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적 기반시설 구축

진안군은 14일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1일 240톤(가축분뇨 210톤, 분뇨 10톤, 음식물 2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이다.

군은 총사업비는 381억원(국비 225억원, 기금 45억원, 민간투자비 11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8월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되며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진안읍 전진로 3183-99 일원)내 16,025㎡ 부지에 조성된다.

특히 해당시설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1일 약 5,000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와 연계 2,100Nm³를 판매함으로써 연간 4,000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조감도

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바이오가스 판매를 통해 3.5억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2020년 5월 (주)진안바이오에너지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사업권 입부지 토지 매입 등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폐자원 에너지화 처리시설 방류수를 진안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기 위해 진안군 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전문가 참여 국제컨퍼런스 개최

무주군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2025) 무주읍과 설천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무주읍 건강도시 조성 / 설천면 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심 허브 거점화)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읍과 무풍면에서는 도시재생인정사업(무주읍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 / 무풍어울림센터 프로젝트)을, 무주읍과 안성면, 설천면 3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무주읍 지역특화상품 개발거점 조성 / 안성면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 설천면 관광객 대상 도깨비 시장 개설)을 추진 중이다.



무주군은 14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백운마당에서 도시재생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도시재생을 통해 본 무주군의 도시재생 방향'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인구 감소와 국토계획, 농·산촌에서의 활동 사항 등을 면밀하게 공유했으며 남서울대학교 최인호 교수는 부동산 가격발생 및 상승 요인, 일본 초고령사회의 문제점, 소멸가능도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의 도시재생과 부동산 영향'을 발표했다.

이어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철모 센터장이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비롯해 창조적인 거점 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해천 센터장은 각 읍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용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공간재생을 통한 무주재창

조 무주 태권도포럼을 꿈꾸며'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열린 토론회에는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심정민 센터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광주대 김항집 교수와 전주대 임미화 교수, 원광대 최성진 교수가 상호 의견을 나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문화와 예술 재생지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인정을 받은 일본 가나자와시를 접하게 돼 기쁘다"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쇠퇴한 환경을 일으키고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전체를 행복한 삶터이자 편안한 쉼터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는 무주민의 정체성을 담아 무주가 도시재생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태권브이랜드' 태권도 성지 랜드마크로

192억원 투입 2025년 6월 완공

무주군이 태권브이 조형물(태권브이 로봇 콘텐츠) 설치를 앞두고 있어 태권도와 연계된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태권브이랜드는 태권도를 주제로 한 로봇 체험공간으로, 태권도사관학교, 태권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이 취지다.



무주태권브이랜드 조감도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태권브이 로봇 콘텐츠 외에도 양자에너지터널, 파일럿 비밀훈련소, 관람·포토존, 퍼포먼스 존, 태권브이 콘텐츠 전시체험관, 태권브이 비밀연구소, 디지털 체험 공간,

진안군, 사과 농가 대상 화상병 공동방제 약제 배부

진안군은 관내 전체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공동방제용 약제를 24일까지 배부하고 있다며 사과 꽃 피기 전부터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꽃 피기 전부터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 3종을 구매하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 중이다.

약제 배부 이후에도 문자발송, 리플릿 배부, 교육을 실시하고 전지원들이 나서 적기 약제 방제를 지속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개최

장수군은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1차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장수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장수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향후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유치민관 공동대응 협약' 추진 및 홍보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함께 실시했으며,



△지역특성 기반의 인구현황 분석 △군민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 수요분석 △현행 사업 검토와 연계분야별 사업 발굴방향 등의 보고와 더불어 장수군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책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전문예찰 요원 양성

무주군은 매년 추진하는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예찰 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가들이 병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예찰요원 양성에 착수했다.

교육은 안동시 호반자연휴양림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로 사과재배 5년 이상 농업인 중 병해충 예찰요원 교육

희망자가 대상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사)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이며 장일 박사 등 전문가들이 병·해충 발생상태와 진단에 대한 교육과 농약 방제 등 사과 병해충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시험평가를 통해 사과 전문예찰요원을 선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봄철 산불예방 비상태세 갖춰

봄철을 맞아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입야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무주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까지 산불예방에 따른 비상태세를 갖추고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각 읍면 진화 및 감시인력 76명과 무주군 진화대 10명을 채용해 산불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진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산불방생요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 위험지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1~4등급으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간다.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방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예방 방송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진행해 6개 읍·면 150개 마을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모집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청자는 4월말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